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첫 지정 기대감

30일 규제자유특구위서 최종발표 중기부, 특구 신규 지정안 등 심의

오영주 중기부 장관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자유로운 비즈니스환경 구축 노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이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명단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

정 안전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심의위원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국제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를 좁히기위해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한다

입을 발표한다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진진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한다.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 중전압) 기술 실증으로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안전상정 후 심의됐다. 세부 내용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경북이 추진하는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관련 표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고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 밖에도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시몬스 ‘뷰티레스트 1925’ 가정의달 프로모션

시몬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선물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을 위한 ‘뷰티레스트 1925 프로모션’을 펼친다.

16일 시몬스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1925는 업계 최초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ESG 침대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가격의 5%가 내년 완공 예정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쌓인다. 지난해 2월 출시 후 연말까지 2000개 넘게 팔리며 누적 기부금 4억원을 달성했다.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꿀잠을 선물하고 착한 행보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 중인 학부모들은 뷰티레스트 1925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함께 가치 소비의 참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시몬스는 국내 침대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매년 갱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 등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를 실천하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5월 동행축제 참여 우수기업 300곳 최종 선정

공개모집·추천 등 총 1139곳서 신청 대형플랫폼·온라인 판촉전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과 추천선발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다. 공개모집 956개사, 추천 183개사 등 총 1139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

졌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백년가게 제품 ‘따귀탕’, 건강주스, 떡볶이 등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 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30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 카카오임팩트 육심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 소진공-카카오, 지역상권 활성화 맞손

단골거리·단골시장 사업 추진 지역상권·상점가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카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5일 대전 본부에서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디지털 튜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 추진 ▲상권 및 개별점포 특채널 메시지 비용 지원 ▲우수시장 대상 디지털 광고-판매-결제 구축 지원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소진공과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2022년부터 카카오 단골시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단골거리’ 사업을 신설해 전국 26곳의 지역상권·상점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에 상권 단위 홍보채널 개설, 행사 개최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너지를 높인다.

기존 ‘단골시장’ 사업은 올해 100곳 이상의 전통시장을 신규 선정해 추진하며, 이 중 5곳 내외의 우수시장에는 디지털 기반의 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카카오의 디지털 튜터가 지역상권·전통시장에 파견돼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 교육과 함께 지역 특색과 연계한 단골거리, 단골시장 조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개별점포가맹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와, 카카오 앱 내 백년소상공인 지정 업체 2325곳을 신규 등록해 백년가게 인지도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과 매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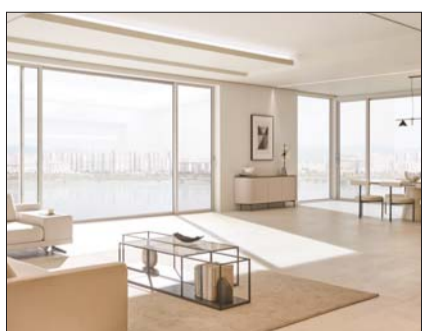
## LX하우시스, 미니멀·단열 잡은 창호 선포

‘LX지인 창호 뷰프레임’ 출시

LX하우시스가 완벽한 뷰를 선사하는 창호 신제품 ‘LXZ:IN(LX지인) 창호뷰프레임(VUEFRAME)’(사진)을 출시했다.

1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뷰프레임’은 기존 PVC창호와 차원이 다른 미니멀한 디자인과 로이유리 1장만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현이 가능한 단열능력이 뛰어나다.

먼저 ‘뷰프레임’은 간결하고 깔끔한 ‘미니멀 디자인’을 제품 전반에 구현했다. 국내 창호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



틀은 거의 안 보이고 창밖만 보이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도입하고 창밖 높이까지 최대 14mm 줄여 슬림해진 프레임으로 더 넓어진 뷰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